

영산고,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단체 금상 수상

영산고등학교는 제37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1차 시험에서 단체상 금상을 수상했으며, 2학년 이승영 학생이 동상, 1학년 김현준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으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대회는 국내 최고의 수학대회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산고 학생들이 탁월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해 경쟁 상대들을 압도했으며, 학교들 간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산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 활동(특기적성)과 진로 탐색을 위해 30여 개의 교내 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만의 특색 있는

이승영 동상·김현준 장려상...2년연속 입상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주제 중심 수업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노력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다. 한상원 이사장은 사재를 들여 기숙사 부지 14채를 15억에 매입하는

등 매년 6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투자함으로써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서의 큰 비전을 갖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영 학생은 "학교의 수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수학적 지식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통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 참가해 세계의 친구들과 겨뤄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창균 교장은 "원대한 꿈, 수불식권, 인류공영의 교훈 아래 바른 품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포토뉴스



서구, (주)광주신세계와 물품 기부 캠페인 광주시 서구가 자원순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서구는 최근 (주)광주신세계 임직원과 함께 중고 의류, 물품 기부 캠페인을 통해 수집한 의류 및 잡화 200여 점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조선주 기자



순천대 졸업생 강수빈, 후배 사랑 발전기금 기탁 순천대학교는 인문 예술대학 사회체육학과 졸업생 양궁부 강수빈 학생이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한 강수빈은 순천시청 선수 입단을 기념해 사회체육학과와 오랜 전통인 '후배 사랑 발전기금' 기탁 릴레이에 동참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청암대 웹툰콘텐츠과, 학생지도 성과 '1억' 돌파 청암대학교 웹툰콘텐츠과는 2021~2023년 웹툰 관련 지원사업 및 공모전에 선정된 전체 학생 40명(중복포함)의 총 수혜금액이 1억4320만원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전자기술연구원 업무협약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맞춘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ENTECH는 지난 20일 대학 1동 4층 회의실에서 에너지신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KET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에너지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기획 및 연구 개발, 학술정보 및 인적교류 등 연간 기술협력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에너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및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상호 이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실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 방사능 검사 건수 확대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강화를 위해 21일 수산(건어물)

4개 품목, 농산물 8개 품목 등 총 12건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초 광주지역 학교·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회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당초 총 6회, 65건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 등으로 식재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련 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검사 건수(수산물 확대를 10건 추가해 총

75건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식재료 방사능 검사품목 및 건수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사능 검사는 학교급식으로 제공되기 전 농·수산물 중 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와 시료로 사용할 농·수산물 유상수거 등을 사전 협의한다.

이후 검사 당일 오전 해당 식재료 납품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수거한다. 시교육청은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후 4~5일 전후로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전체 학교에 안내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광양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족 인형극' 운영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라실예술촌에서 센터 등록 급식소 어린이와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가족 인형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사전에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대상자 35가족(10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다.

프로그램은 ▲스티커 붙이기 ▲가족인형극 '아기공룡 뽀뽀의 야채파워' ▲야외 비눗방울 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 인형극은 공동인형극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주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해 흥미를 유발하고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식품선택에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 실천을 유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편식 예방을 위해 유익한 내용으로 채소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박순기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동구 복싱선수단, 지역 동호인 대상 재능기부 눈길

1:1 스파링 등 기초·전문체력 훈련 병행, 뜨거운 관심



광주 동구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선수단이 지역 복싱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훈련 지도' 재능기부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동구 복싱선수단(감독 신병훈)은

최근 선수단 전용 훈련장인 서구 영주실내체육관 복싱장에서 광주지역 생활체육 복싱 동호인 60여 명을 초청해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날 수업은 복싱 동호인들의 심

폐·근지구력 강화를 위한 워밍업을 시작으로 체도우복싱, 기술훈련(샌드백·미트) 등 기초체력 훈련과 자세 교정·개인기술보완·실전기술훈련 등 전문 체력 훈련을 병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구복싱선수단 소속 선수와 복싱 동호인의 1:1 스파링은 높은 인기로 당초 예정됐던 시간(90분)을 훌쩍 넘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며 동호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동구 복싱선수단은 이번 재능기부를 계기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대외적인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외부 평가에 따라 향후 주요 대회가 없는 비시즌을 활용해 적극적인 재능기부에 나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왕조1동 대동마을 청년회, 어르신과 소통

대동마을 청년회 재발족...힘찬 출발로 마을 활기



순천시 왕조1동 대동마을청년회는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심 속 마을로서는 보기 드물게 지난 3월 청년회가 재발족함에 따라, 평생 동거동락하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대 간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를 우선 마련했다.

장은주 경로당 회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잘 먹었다"며 "자리를 마련한 청년회에 감

사하고, 청년회가 다시 만들어져 든든하다"고 전했다.

문인후 청년회장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매월 정례회의로 청년회를 활성화하고, 고령화로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열심히 봉사하여 활력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천시 왕조1동 대동마을 청년회는 문인후 회장, 장안순 부회장, 김광대 사무국장을 주축으로 18명으로 구성, 힘찬 재도약을 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상이군경회, 안보사진 전시회 개최

6·25전쟁 73주년 기념,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20점 전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양시지회는 오는 25일까지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층 로비에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 안보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6·25전쟁 제73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6.25전쟁 그리고 분단, 기억해야 할 역사'를 주제로 한 사진 20점이 지난 20일부터 전시됐다. /광양=조순익 기자

강동현 상이군경회 광양시지회장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느끼고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5일 오전 11시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전남교육청, 호치민시교육청과 교류 협약

"학생·교사 성장지원·정보화 관련 교류 등 추진" 맞춘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일 베트남 호치민시교육청과 학생 및 교사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교류단, 응웬반 히에우 청장 및 호치민시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호치민시교육청이 대한민국에 있

는 교육청과 MOU를 맺은 최초이며, 한-베간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과 호치민시교육청은 이 협약을 통해 앞으로 △학생·교사 교육교류를 위한 학교 간 자매결연 △에듀테크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교육 교류 △한국과 베트남과의 언어·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상호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호 기자